

전주 글로벌기업 미국 진출 가시화

아토크엔에이, Mary Kay, Johnson&Johnson 외 4곳서 라이선싱 계약 위한 데이터 검토 TMC, 다국적 기업 푸츠마스터와 필드 테스트 마무리·슈빙과 기밀유지협약 체결

전주시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0개월 동안 추진해온 '2016년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사업'에 선정된 (주)아토크엔에이와 (주)TMC 등 2개 기업이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잠재고객을 확보하고 수출계약을 앞두는 등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Kaist 전북지역혁신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전주시 소재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사업역량 강화를 지원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최근 2차년도 사업이 완료됐다.

시는 지난해 아토크엔에이와 TMC를 발굴해 이들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국현지에서 고객 및 유통망 발굴, 인증 및 지적재산권 자문, 해외 박람회참가 등 집중적인 시장개척 영업활동 지원을 제공해왔다. 또, 카이스트와 텍사스 주립대학교 연구원들을 통해 해외 현지 마케팅을 위한 미국 현지 110개사의 잠재고객도 발굴했다.

그 결과, 고음질 추출물과 아토크엔에이 화장품을 생산하는 아토크엔에이는 현재 Mary Kay, Johnson&Johnson 외 4개사에서 라이선싱 계약을 위해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2015년 기

준 연 4조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한 미국의 다국적 화장품 제조회사로인 Mary Kay는 (주)아토크엔에이와 고음질 추출물 원료에 대한 기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하고, 원료 효능테스트를 진행중이 있어 라이선싱 계약이 체결이 될 경우 해외시장 진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토크엔에이는 또 미용박람회인 '2017 Professional Beauty London'에 참가해 영국 등 유럽의 14개사의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열띤 상담을 통해 dermaBud 선블록과 주름개선, 수분크림 등의 샘플을 모두 판매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 업체는 현재 본격적인 영국 및 유럽진출을 위

해 유럽인증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6월에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인증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 펌프트럭 슬러리 이송관 파이프를 제조하는 (주)TMC도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사업을 통해 세계 콘크리트 펌프트럭 파이프 시장의 80%를 장악한 세계 1위·2위를 달리는 다국적 기업 푸츠마스터(Putzmeister)와 슈빙(SCHWING)과의 연결이 성사됐다.

TMC는 현재 푸츠마스터와의 필드 테스트가 마무리돼 약 2만 5000볼 규모의 샘플오더를 기다리고 있다. 또, 슈빙과는 기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하고 이종관 파이프 필드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샘플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과 브라질, 인도시장 등의 독점권을 논의 중에 있어 독점권 체결 시 수출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근 기자

“정말 억울합니다”... 지적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흥미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의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급 지적장애인 A(42)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커피숍 앞에서 폐지를 줍던 중 자신에게 욕을 하던 B(52)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인근에서 있던 지인의 가게에서 식칼을 가지고 B씨에게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볼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안경테가 부러졌다.

B씨 일행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결국 특수상해죄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사는 “A씨가 식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했고, B씨가 다친 것은 사실이나 A씨가 식칼을 휘두른 칼에 다친 것은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복식체육관 관장으로 건장한 체격인 B씨가 식칼을 빼앗은 뒤 오히려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싸움을 말리면서 일행이 B씨와 함께 뒤영

겨 넘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안경이 부러지면서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항변했다.

이어 “A씨가 선천성 뇌병변장애 때문에 언어능력과 행동능력이 저하돼 있고 손가락의 변형으로 물건을 제대로 잡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증거로 채택된 당시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A씨가 B씨의 팔 부분에 칼을 가져다 대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하지만 얼굴에 흥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B씨가 A씨의 식칼을 빼앗은 뒤 손과 발로 A씨를 여러차례 폭행하는 모습과 B씨가 폭행을 말리던 일행과 함께 넘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목격자들도 A씨가 B씨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B씨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관장으로 건장한 체격인 B씨가 식칼을 빼앗은 뒤 오히려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싸움을 말리면서 일행이 B씨와 함께 뒤영

원하는 시간에 이용가능 ‘농촌형 마을택시’, 오늘부터 운행

전주시-전북개인택시조합 '모심택시' 운행 협약 체결 1대당 2000원 4명 탑승 가능



전주시는 12일 반월동에 위치한 전북개인택시조합사무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윤식 전북개인택시조합장을 비롯한 마을택시 운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농촌형 마을택시인 '모심택시' 운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택시 운행에 나서기로 했다.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전주 농촌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마을택시가 13일부터 운행된다.

전주시는 12일 반월동에 위치한 전북개인택시조합사무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윤식 전북개인택시조합장을 비롯한 마을택시 운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농촌형 마을택시인 '모심택시' 운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택시 운행에 나서기로 했다. 모심택시는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를 '모시러 간다'는 의미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찾아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된다.

모심택시는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오지마을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보장과 이동편익 등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교통서비스로,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 이상이거나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3시간 이상인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된다. 운행지역은 △청북마을 △방죽안마을 △신유경마을

등 조촌동 3개 마을과 △장재마을 △공덕마을 △삼천마을 △가소마을 등 우이동 4개 마을, △석산마을 △우북마을 △비야 △만수동 △신덕마을 등 삼천3동 5개 마을 등 3개동 12개 마을로, 1일 34회 운행된다.

이용요금은 택시 1대당 2,000원이며, 택시 한 대에 4명까지 탑승할 수 있

는 만큼 4명이 1대의 택시에 탑승할 경우 1인당 500원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주민들이 지불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전주시가 개인택시조합에 지급하게 된다.

마을별 운행횟수와 운행 시간, 장소 등은 사전에 해당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거쳐 마을주민들이 요구가 반영돼

결정됐다. 이에 따라, 조촌동 마을은 각 마을회관에서 동산동우체국까지, 우이동 마을의 경우 모래내시장까지, 삼천3동의 경우 석산마을은 서부시장까지, 나머지 마을들은 남부시장까지 각각 운행된다. /김민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총선 후보자 선거비 누락·신고 비선 책임자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총선에서 후보의 선거비용 일부 누락·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의 비선 회계책임자 박모(3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회계책임자로 등록하지 않은 박씨는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선거비용 총 8020여만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유권자에게 보낸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1928만원을 선거비용 회계에 포함하지 않고 후원회 회계에 넣어 선거비를 누락·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판사는 이날 박씨가 선관위에 등록을 하지 않고 회계 업무를 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선거비용 회계에 포함해도 법정 선거비용인 2억1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후원회 회계를 신고하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내용까지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선거비용을 누락·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민근 기자

호남고속도로서 충돌사고 발생

12일 오후 1시10분께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내장산 IC 인근에서 고속버스와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명과 트럭 운전자 1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사고 충격으로 버스는 가드레일을 넘어 고속도로 외곽으로 이탈했다.

경찰은 고속버스가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버스 승객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